

어학연수생 주간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괌 대학교 (미국)	날짜	2024/6/30- 2024/7/7
학과	간호학과	이름	이도원
학번	2148014	이메일주소	ehdnjs1430@naver.com

학교 생활

1. 학업 관련

괌 현지 도착 다음날인 월요일에 레벨테스트 후 반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 되었다. 수업은 보통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의견나누기, 경험 나누기 등의 방식으로 영어를 많이 말하고 영어발표의 경험을 쌓음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CNN뉴스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여 페러프라이징 형식으로 정리하고 내 의견을 덧붙여 발표하는 수업도 인상적이었다. 사실 CNN뉴스 기사는 찾아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통해 여러가지 사회 문제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날에는 한국의 고전소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발표하였다. 이미 아는 이야기여도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려니 쉽지 않았지만 시도해보는 것 자체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항상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참으로 좋고 감사하다. 하지만 모두의 앞에서 하는 큰 발표보다 작은 그룹 내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하는 수업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았으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수업이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2. 생활 관련

기숙사는 방도 넓고 침대도 폭신하며 좋다. 하지만 24시간 가동되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조금 추워서 아쉽다.. 사실 거의 모든 점심, 저녁을 한식으로 먹고 있어서 현지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서 제공해주는 한식은 맛은 있지만 가격대비 조금 비싸고 양이 적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3. 기타

미국에서 온 신디와 테스와 친해졌다. 저녁에 그들과 함께 산책과 런닝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이다. 남은 시간동안 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고 싶다. 영어를 사용하며 다룬이와 소통할 때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좋은 추억과 시간을 많이 쌓아가야겠다.

또,, 비치데일로 바다에도 가고, 독립기념일에는 투몬 비치도 가며 시내 투어도 다녀왔다. 현지 분위기를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향후 계획

괌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과 많은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 가까워지고 편해 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수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좀 더 부드럽고 편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직 한국에 와보지 않은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잘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내가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전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한다.

다음주에는 차모르 빌리지에 가는 시간이 있는데 가서 좋은 경험과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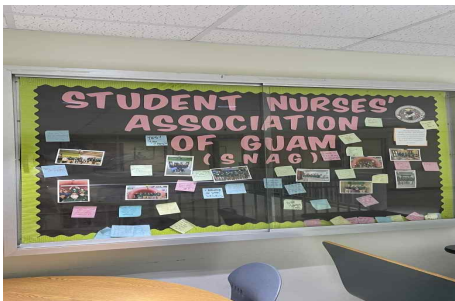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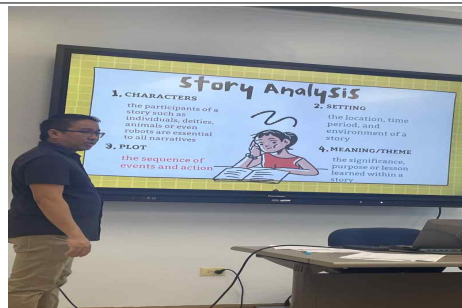
투몬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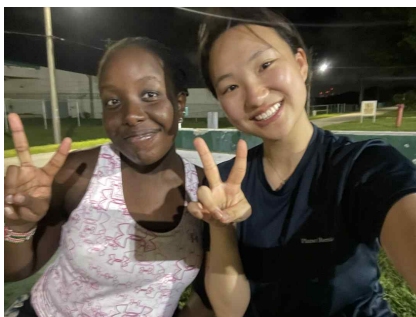
코코넛 캔디



괌대학교 간호학과 건물 내 게시판



수업 시간



새로사귀 친구 신디



새로사귀 친구 테스